



2018 강원학 연구보고 2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기초 연구

A Basic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ve for Gangwon Studies

정지연

정보화 사회를 넘어 지식기반의 사회로 변화해 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아카이브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교량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아카이브의 구축은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위한 토대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에서도 강원학 연구 성과물을 수집하여 이를 제공하는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원학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논의해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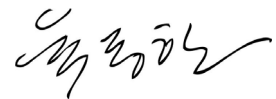
그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강원학 관련 자료의 방대함과 자료 유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관리·활용의 측면에서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를 분석하고, 향후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연구진과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강원연구원장



목차

요약문

| | |
|--|-----------|
| I. 연구의 개요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2. 연구 방법 | 2 |
| 3. 연구 수행 체계도 | 4 |
| II. 아카이브의 개요 | 5 |
| 1. 아카이브의 개념 | 5 |
| 2.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 7 |
| 2.1 수집 | 7 |
| 2.2 정리 : 선별과 평가 | 8 |
| 2.3 분류 | 8 |
| 2.4 기술 | 9 |
| 2.5 DB화 | 13 |
| 2.6 보존 | 16 |
| 2.7 서비스 | 17 |
| III. 아카이브 운영 사례 분석 및 수요조사 | 19 |
| 1. 지역학센터 아카이브 사례 | 19 |
| 1.1 제주학아카이브 : 제주학연구센터 | 19 |
| 1.2 인천학 아카이브 : 인천학연구원 | 21 |

| | |
|---------------------------------|-----------|
| 1.3 경기도메모리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22 |
| 1.4 공주학 아카이브 : 공주학연구소 | 23 |
| 2. 강원지역 내 아카이브 구축 사례 | 24 |
| 2.1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 24 |
| 2.2 아리랑아카이브 : 정선 아리랑 연구소 | 24 |
| 2.3 강원아카이브 :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 26 |
| 3. 아카이브 운영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27 |
| 4. 강원학 아카이브 수요조사 | 28 |
| IV. 강원학 아카이브 개요 | 33 |
| 1.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 33 |
| 2. 강원학의 개념 및 범위 | 35 |
| 3. 강원학 아카이브 대상 | 37 |
| 4. 강원학 아카이브의 주요 업무 | 37 |
| 4.1 기본 업무 | 37 |
| 4.2 단계별 추진 업무 | 39 |
| V. 강원학 아카이브 단계별 전략 | 43 |
| 1. 수집정책 | 43 |
| 1.1 목표 | 43 |
| 1.2 수집방법 | 45 |
| 1.3 수집대상 | 46 |
| 1.4. 수집 자료의 범위 | 48 |
| 1.5 선별 및 평가 | 51 |
| 1.6 협의체 구성 | 55 |
| 2. 등록 | 57 |
| 2.1 자료 분류 | 57 |
| 2.2 기술 | 57 |

| | |
|---|-----------|
| 3. 강원학 자료의 DB화 | 58 |
| 4. 서비스 | 59 |
| 4.1 이용자 계층 분석 | 59 |
| 4.2 연구자 중심의 활용 : 자료의 빅데이터화 | 59 |
| 4.3 콘텐츠 개발 | 60 |
| 4.4 라키비움형 서비스 제공 | 61 |
| VI.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 63 |
| 1.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63 |
| 2. 수집정책 수립 | 63 |
| 3. 아카이브 관련 기준안 수립을 위한 ‘강원학 아카이브 TFT’ 결성 | 64 |
| 4. 강원학 자료 및 연구자 정보 DB화 | 65 |
| 5. 컬렉션 아카이브 기획 | 65 |
| 6. 공간 및 장비 마련 | 66 |
| 7. 인력 | 67 |
| 8. 예산 | 68 |
| VII. 결론 | 69 |
| 참고문헌 | 71 |
| 부 록 | 73 |
| ABSTRACT | 75 |

표목차

<표 II-1> ISAD(G)의 기술영역 10
<표 II-2> ISAAR(CPF) 기술영역 12
<표 V-1> 강원학 자료 소장처 46
<표 V-2> 강원도 내 문화원 정기간행물 현황 48
<표 V-3> 단계별 자료 수집 전략 49
<표 V-4> 강원학 아카이브 평가 기준(안) 51
<표 V-5> 장기보존 대상 연구기록의 평가선별 기준 52
<표 V-6> 자료 등급 기준(안) 54
<표 VI-1> 아카이브 작업 영역별 필요 장비 67

그림목차

<그림 Ⅲ-1> 제주학연구센터 분야별 자료구축 현황 20

<그림 Ⅲ-2> 제주학연구센터 유형별 자료구축 현황 20

<그림 Ⅲ-3>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28

<그림 Ⅲ-4>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시 우선 수집 분야 29

<그림 Ⅲ-5> 강원학 아카이브 주요 기능 29

<그림 Ⅲ-6> 소속 기관 발간 자료의 디지털화 동의 여부 30

<그림 Ⅲ-7> 강원학 아카이브 협의체 구축 동참 여부 30

<그림 Ⅲ-8> 연구자 등록 및 연구성과물 공유 동의 여부 31

요 약 문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원도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 성과물을 한 곳에 모아 집적(集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강원학 관련 연구 자료를 총괄하여 집적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강원학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강원학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축된 자료를 교육, 연구, 창작 산업 등 다양한 자원의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자료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다.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관련 자료 및 지역 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및 DB화 방안, 저작권 문제, 자료 제공에 대한 표준화 방안 등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밀한 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학 관련 자료의 방대함과 자료 유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관리·활용의 측면에서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를 분석하고, 향후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록학적 측면에서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리하고 수집-정리(선별과 평가)-분류-기술-DB화-보존-활용(서비스) 등의 기본 프로세스를 통해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시 필요로 하는 기본 요소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내외의 아카이브 구축 현황을 분석하고 도내 강원학 아카이브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학아카이브의 개념 및 대상을 정리하고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강원학아카이브 구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수집 정책 수립, 강원학 아카이브 TFT 구성 및 운영, 강원학 자료 및 연구자 정보 DB화, 컬렉션 아카이브 기획, 공간 및 장비 마련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하였다.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 지역사회의 구조와 동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 관심이 지역 내부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실천이 확대되면서 지역에 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물이 집대성되었다.

지식과 정보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메타데이터 구축, 표준지침 등을 제시하여 지식정보 자원 관리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강원 지역 역시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대되어 가면서 강원도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이를 한 곳에 모아 집적(集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창구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강원학 연구 성과물의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구나 자료 조사의 불필요한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대학, 문화원, 시군 등에서 제각각 특정분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이러한 작업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학 진흥’이라는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자료의 축적과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강원학 관련 연구 자료를 총괄하여 집적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강원학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강원학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축된 자료를 교육, 연구, 창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문화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다양한 자원의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자료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강원학’을 적극 진흥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자료 보급 시스템인 강원학 아카이브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관련 자료 및 지역 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및 DB화 방안, 저작권 문제, 자료 제공에 대한 표준화 방안 등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밀한 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학 관련 자료의 방대함과 자료 유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관리·활용의 측면에서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를 분석하고, 향후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강원학 아카이브 기본 요소를 분석하고 향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아카이브의 개념과 요건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집 대상에 대한 개념 및 범위 설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에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강원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강원학 자료의 대상 및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를 수집-정리-분류-기술-DB화(보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절차별 수행되어야 하는 표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아카이브 수립의 기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둘째, 도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카이브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

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자문을 수행한다. 먼저, 전국 지역학연구센터 중에서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아카이브 구축 시 필수 요소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강원도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카이브 구축 기관 중 모범 운영 기관을 선정·방문하여 아카이브 운영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강원학 아카이브의 특색에 맞도록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셋째,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시 예상 이용자 계층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선호하는 기능, 우선 수집분야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강원학 아카이브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구축 절차별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연구 수행 체계도

| 연구 흐름 | 세부내용 | 연구방법 |
|--------------------|--|--|
| 연구의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검토 |
| 강원학 및 아카이브 연구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및 범위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헌 및 자료 활용 |
|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구축 절차 제시 ▫ 표준 기준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헌 및 자료 활용 |
| 아카이브 현황 분석 및 수요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센터 아카이브 구축 사례 조사 및 분석 ▫ 강원도 지역 아카이브 구축 사례 조사 및 분석 ▫ 수요조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헌 및 자료 활용 ▫ 웹 서비스 현황 분석 ▫ 현장조사 ▫ 설문조사 |
| 강원학 아카이브 업무 및 추진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무 기능 제시 ▫ 세부추진 과제 및 단계별 추진 업무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헌 및 자료 활용 ▫ 전문가 의견 수렴 |
| 강원학 아카이브 단계별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등록, DB화, 서비스 등의 분야를 설정하여 단계별 이슈 분석 및 수행 전략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헌 및 자료 활용 ▫ 전문가 의견 수렴 |
| 결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분석 |

II. 아카이브의 개요

1. 아카이브의 개념

아카이브(archives)¹⁾는 기록학 영역의 의미로 영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 또는 영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 및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쉘렌버그는 참고와 연구 목적으로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록보존 기관에 위탁되거나 위탁을 위해 선별된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기관의 기록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

즉, 아카이브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 또는 기관이 업무를 위해 생산하거나 수집 또는 인수하여 만들어진 자료 중에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선별된 자료를 말한다. 또한 아카이브는 그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그 가치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하지만,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정의도 기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종이 기록물이 디지털 기록으로 변화하면서 기록물 보관을 위한 공간, 건물 등 물리적 실체가 반드시 필요했던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기록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의 형태의 아카이브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물리적 보존

1) 영어권의 사전적 의미로는 아카이브(Archives)는 공적인 기록(public records)이나 역사적 문서(historic documents)가 보존되어 있는 장소, 그곳에 보존된 역사적인 기록(Historical records)이나 문서(documents)로 정의된다.

2) 쉘렌버그 저, 이원영 옮김, 『현대기록학개론』, 진리탐구, 2002.

공간을 대체한 디지털 공간으로써의 아카이브는 경제적 편익성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정보의 확장성,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아카이브에 비해 강점이 있다. 기록의 정보자원화를 위한 유통, 가공, 보존의 용이성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조라는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장점은 민간 기록물 아카이브에도 확산되고 있다.³⁾

현재, 아카이브는 기록 보존의 중심에서 기록의 활용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터넷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층이 보다 편리하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아카이브 이용자에 대한 역할도 변화시키고 있다. 즉, 기존 아카이브 이용자들은 기록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면, 지금은 아카이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카이브 역시 단순히 기록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이용자들이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참여형 아카이브로의 확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 참여와 연결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플랫폼’은 전문성을 갖춘 이용자들이 기록을 생산하거나 함께 관리하고 이해하며 공유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통해 모이고 머물며 연결되는 새로운 삶의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찾고 가치를 양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카이브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3) 배양희·김유승,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기록학연구』53, 2017 참조.

4) 윤선우, 「이용자참여와 연결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플랫폼 도입 방안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2.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⁵⁾

2.1 수집

아카이브 구축 시 무엇보다도 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맞는 수집 전략의 수립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아카이브의 수집을 위해서는 아카이브의 사명 및 목적, 수집 범위, 우선 수집순위에 대한 설계, 수집 지침 및 제한, 타 기관과의 협력 방향, 처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수집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집 정책의 수립을 통해 무엇을 수집할지, 수집을 착수하는데 제한점이 무엇이며,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수집의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 진다.⁶⁾

따라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아카이브의 사명 및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아카이브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소장자들에게 기관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수집의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권한 혹은 행정적 권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집정책의 기본 목적은 아카이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집 목적, 수집에 따라 지원되는 프로그램, 수집의 우선 순위, 수집 시 제한 사항, 수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항, 자원의 공유, 협력 정책, 처분 관련사항 등을 포함하며, 수집 정책의 실행, 검토를 위한 절차와 방법, 평가 선별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격적인 수집활동에 앞서 수집분야 자체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수집분야의 개인, 단체, 사건 등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자료 소장자에 대한 탐색과 소재 파악을 위한 리드(leads) 개발도 선행되어야 한다. 리드는 자료 소장자, 내용,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한 리드 개발은 기록물 조사, 문헌조사, 선행 기증자, 연구자, 보존소 소장물, 부고로부터 정보수집, 홍보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⁷⁾

5)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는 복잡하고 방대한 논의가 가능한 분야이므로, 본 절에서는 각 절차별 필수 요소(이슈)만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6) 이러한 수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집기관의 역량, 수집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 확인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2 정리 : 선별과 평가

정리 단계는 미래에 역사적인 가치를 갖게 될 자료의 질과 성격을 판단하는 업무이기에 지적인 노력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판단에 따라 그 가치가 소멸할 수도 있고, 자료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으며, 게다가 반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확인하고 선별을 위한 평가도구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 분석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⁸⁾

- ①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생산했는지에 대한 분석
- ② 기록의 중요성과 질을 결정하기 위한 기록 속의 정보에 대한 분석
- ③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원과의 관련성
- ④ 기록의 잠재적 이용과 접근의 물리적, 법적, 지적 제한에 대한 분석
- ⑤ 기록 보존비용에 대한 분석(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검토)

이를 바탕으로 기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선별·평가 기준안을 수립해야 한다.

2.3 분류

일반적으로 분류는 어떠한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를 나누는 것으로, 기록에 대한 선별·평가, 이용 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도구가 된다.

분류를 하는 목적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료 자체에 대한 물리적 통제와 다양한 분류 방법의 적용을 통해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

7)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Gerald Ham, 강경무·김상민 역,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pp.80~82 참고.

8) 신원영, 「한국 공공기록관리 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현대 사회의 기록은 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대량화되어 있으며, 그 출처 또한 다양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집기관의 목적과 수집 자료의 특징에 맞추어 분류 기준을 세우고 분류체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분류에 있어 중요한 점은 기록 자체의 내용보다는 기록이 생산되고 활용되는 맥락(context) 즉, 기록이 왜 존재하는가를 기초로 분류하는데 있다.

2.4 기술

수집 자료에 대한 기술은 관리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내부·외부 이용자들이 자료에 접근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에 대한 기술은 자료의 기원과 배경 및 출처, 자료의 형태 및 내용, 다른 자료들과의 관계, 검색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용자의 검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다.

기술은 크게 자료에 대한 기술과 자료를 설명해 주는 메타데이터로 구분이 된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data about data)⁹⁾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자원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말한다.¹⁰⁾ 수집 평가가 완료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자원화하기 위해 메타데이터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자료를 의미있는 기록으로 만들기 위해 자료와 이에 대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HTML 이외의 이미지 파일, 데이터베이스,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과 같은 문서의 경우에는 메타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국제표준은 ISAD(G)와 ISAAR(CPF)가 있다.

9) Karen Coyle에 의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Constructed data with a purpose)"라고도 정의한다.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서지기술용으로 만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0) 초기에는 전자자료 특히 웹 자원 또는 네트워크 자원의 조직을 위한 포맷을 의미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전자자료와 웹자료는 물론 일반 정보자원의 기술(記述)과 조직을 위한 표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국제보존기록 기술규칙(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ISAD(G))은 국제기록보존기구(ICA)가 보존 기록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술목록으로 정리하고, 그 교환과 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제 표준이다. 1994년에 제1판이, 2000년에 제2판이 발행되었다. 다계층의 기술 원칙을 강조하고, 7개 영역(식별영역, 맥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연관자료 영역, 주기 영역, 기술통제 영역) 26개의 기술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6년에 원내 표준으로 <연구기록물 기술규칙>을 제정하였다가 2008년에 공공표준으로 확정하였으며, 2011년 다시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이 표준은 ISAD(G)의 기술요소(26개)에 ‘색인어’가 추가되어 27개의 기술요소로 구성된다.

<표 II-1> ISAD(G)의 기술영역

| 영역 | 세부영역 | 내용 |
|------|--------------|--|
| 식별영역 | 참조코드 | 기록건·철·시리즈·그룹 등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기호 |
| | 표제 | 기술단위에 따라 기록의 정체성, 내용 정보 등의 확인을 위해 부여하는 명칭 |
| | 일자 | 기술단위에 따라 기록이 축적되거나 생산된 시점 |
| | 기술계층 | 기록분류체계에 따른 기술단위 |
| |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 규모 : 기록의 물리적인 수량이나 크기 매체 : 정보가 기록된 물리적 물질이나 저장 용기 |
| 배경영역 | 생산자명 | 개인이나 단체 활동과정에서 기록을 생산 추적 유지 하는데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 |
| | 행정연혁/개인이력 | 기록을 생산, 수집한 조직/개인에 대한 변화과정(조직사, 개인사)을 제공함으로써 기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요소 |
| | 기록물 이력 | 기록의 현재 구조나 정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 정리 내역, 검색도구 제작, 기타 목적을 위한 기록의 재사용,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등과 같이 기록의 관리와 보존, 소유권, 각종 책임성 등과 관련 지금까지 이루어진 활동 정보 |

| 영역 | 세부영역 | 내용 |
|-------------|--------------------|--|
| |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 | 수집/이관된 직접적 출처, 수집일자, 수집방법에 대한 정보 |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기술단위에 따라 기록의 내용, 유형 등에 대한 정보 |
| | 평가 정보, 폐기, 처리일정 정보 | 기술단위에 따라 기록의 보존기간, 방법, 장소, 폐기 일정 등 기록에 취해질 일정에 대한 계획된 스케줄 |
| | 추가 | 기록관리 기관이 이미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추가 수집되는 기록 |
| | 정리체계 | 기술단위에 따라 기록의 구조나 질서, 분류된 방식에 관한 정보 |
|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 열람조건 | 기술단위에 따라 기록 접근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상태, 기타규정 및 열람의 제한 기간 열람 가능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 | 재생산조건 | 기술단위에 따라 기록의 번역·출판 등 2차 저작물에 활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 등 고려해야 할 제약조건 |
| | 언어와 문자 | 기술단위를 구성하는 언어 규약 및 기호체계 |
| |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 기술단위를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리적 특징이나 기술적 요구사항 |
| | 검색도구 | 기술단위에 대한 모든 검색도구 |
| 연관자료 영역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기술단위가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원본의 존재, 위치,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 |
| | 사본의 존재와 위치 | 기술단위의 사본 존재, 위치, 이용가능성 여부에 관한 정보 |
| | 관련기술단위 | 기록관리기관 내 혹은 타 기관에 해당 기록과 관련 기록이 있을 시 그 기록과의 연관 정보 제공 |
| | 출판주기 | 기술단위의 활용·연구 또는 분석에 기초한 모든 출판물 정보 |
| 주기영역 | 주기 | 기술 시 다른 요소에서 설명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설명하기 위한 요소 |
| 기술통제영역 | 아키비스트 주기 | 기술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기술을 하는데 참고한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
| | 규칙과 협약 | 기술할 때 근거로 삼은 규칙과 협약 등에 관한 정보 |
| | 기술일자 | 기술하고 수정한 시점 |

한편, 국제기록전거레코드규칙(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Corporation Body, Person, Family, ISAAR(CPF))은 보존기록의 전거레코드의 구성과 요소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199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2004년에 다시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모두 식별영역, 기술영역, 관계영역, 통제영역 등 4개 영역과 그에 대한 27개의 기술요소, 그리고 전거레코드를 연계시키기 위한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인, 가족, 단체에 관한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생산자 정보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생산자의 이름을 표준화하거나 기록의 생산 배경을 이해하는 정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표 II-2> ISAAR(CPF) 기술영역

| 영역구분 | 항목명 |
|------|-------------------------|
| 식별영역 | 개체의 종류 |
| | 표목의 전거형태 |
| | 대등 표목 형태 |
| | 다른 규칙에 의한 표목의 표준 형태 |
| | 기타 표목 형태 |
| | 단체에 대한 식별자 |
| 기술영역 | 존속기간 |
| | 연혁 |
| | 장소 |
| | 법적인 지위 |
| | 기능, 업무, 활동 |
| | 관련 규정 및 정보원 |
| | 내부구조 및 가계 |
| | 일반적인 배경 |
| 관계영역 | 관련 단체, 개인, 가족의 이름 및 식별자 |
| | 관계 구분 |
| | 관계 기술 |
| | 관계 지속기간 |

| 영역구분 | 항목명 |
|-------------------------|----------------|
| 통제영역 | 전거레코드 식별자 |
| | 기관 식별자 |
| | 규칙 및 협약 |
| | 상태 |
| | 상세정도 |
| | 작성, 수정, 삭제 일자 |
| | 언어와 문자 |
| | 정보원 |
| | 유지 주기 |
| 기록/자료와 단체·개인·가족과의 관계 | 관련 자료 식별자 |
| | 관련된 자료의 유형 |
| | 관계의 특성 |
| | 관련된 자료 및 관계 일자 |

2.5 DB화

수집된 자료는 원본이 전자 파일일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원본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는 보존 및 서비스라는 두 가지의 상호보완적인 사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변환 작업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단순하게 기록을 스캔하여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이 아니라 디지털 변환을 위한 계획, 설계, 진행, 관리, 평가, 수정, 재평가 등의 총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료의 DB화를 위해서는 기관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변환 가능한 자료만 수집하는 것은 효율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집 대상과 디지털 변환 대상의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본자료와 보존매체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디지털로 변환된 자원이 열람 제공용으로만 활용되고 보존을 위한 보존매체로서의 역할은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원본자료와 보존매체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하며, 디지털로 변환된 이후 원본에 대한 처분 지침도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의 파일의 이미지와 저장 및 활용을 위한 표준 포맷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표준 포맷을 정하지 않으면 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지 포맷의 경우 가능하면 특정 업체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유지되는 독점 포맷보다는 국제표준이나 공개된 비 독점 포맷을 선정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음향, 영상, 사진 등의 자원들에 대해서도 포맷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 보존을 꾀할 수 있다. 디지털 음향자료의 경우에도 매체가 지닌 취약성(가변성, 휘발성, 단명성 등)으로 인해 디지털 변환이나 저장 시스템의 이관과 유지관리, 저장된 음향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등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음향 녹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수립도 필수적이다.

셋째, 장비의 구형화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날이 발전하는 IT 기술에 비해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시장의 발전 방향이나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유동성이 크다. 이에 따라 디지털 변환 대상 자료의 유형에 따른 우선 순위를 매겨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어떠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 변환 대상 자료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변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많은 유형의 대상 자료를 그 상태와 특성에 따라 모두 디지털 변환할 수는 없다. 때문에 디지털 변환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미래에 유용할 것을 예측해야하고, 보존과 접근을 위한 시기를 예상해야 하며, 지속적인 갱신을 요구하는 완전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Jarnet Gertz의 디지털 변환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록물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 ② 현재의 이용자들이 디지털화를 정당화하고 있는가
- ③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가
- ④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디지털화 할 수 있는가
- ⑤ 디지털화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
- ⑥ 비용이 적당하고 지원이 가능한가

※ Gertz, J. 「디지털 시대에 있는 보전을 위한 선택: 개관」 도서관 자원 & 기술 서비스, 2000.

또한, 디지털 변환이 된 후 활용성과 이용률이 높은 것인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이용 범위나 비용이 책정되어 디지털 변환 자료를 이용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한 디지털 변환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변환된 자료의 진본성에 불확실성을 줄 뿐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상황이나 디지털 변환 시설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변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웃소싱의 방법을 쓴다든가 디지털 변환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아웃소싱은 수집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아웃소싱 방법은 잘 활용하면 품질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웃소싱을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고, 관련 경험성, 안정성,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디지털화 결과물의 품질검증, 자료의 분실 또는 손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목록 대조 및 확인, 자료의 이동, 발송, 수령, 반송 등의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도록 한다.

2.6 보존

자료가 후손에게까지 전달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잘 보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유형의 특성에 적합한 장기보존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보존 전략으로는 에뮬레이션(Emulation), 마이그레이션(Migration), 캡슐화(Encapsulation) 등의 방법이 있다. 에뮬레이션은 디지털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디스플레이하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원래 기능을 이용시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생산 시점과 동일한 운영 환경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마이그레이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매체, 포맷, 시스템이 대체되거나, 유실되거나, 노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록물로의 지속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운영 체제, 저장 매체, 포맷, 시스템으로 이전의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이다.

캡슐화는 에뮬레이션의 진일보한 형태로 디지털 객체와 디지털 객체에 접근·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함께 보존하는 디지털 보존 전략이다.

보존전략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소장 자료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디지털 원본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메타데이터와의 연계성을 잘 유지하여, 서비스할 때 자료와 메타데이터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보존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보존메타데이터, 보존 포맷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메타데이터는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이용에 필요한 정보요소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록으로서의 품질이 보장된 기록보존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가 획득되어야 한다.

보존 메타데이터는 기록물의 4대 속성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존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자원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기술하는 구조적 정보로, 디지털 자원의 보존 및 관리, 접근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메타데이터에 비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항목(변환과 허가를 포함하는 관리 메타데이터, 기술 메타데이터, 구조 메타데이터 등)들을 포괄하여야 한다.

즉, 보존 메타데이터에는 장기 보존과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며, 다른 객체와의 관계 혹은 이력 정보를 기술한다. 또한 데이터 객체 자체와 기술적 환경 정보를 함께 기술하여 급속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진

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저작권 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¹¹⁾

장기보존 포맷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전자기록물 원문, 문서보존포맷, 메타데이터, 전자서명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것이다. 장기보존포맷은 기본적으로 내용정보와 설명정보로 구성되는데, 이 구조는 XML 기반의 패키징 방법을 하며, 이관, 보존, 보급되는 패키지를 구별하여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묶어야 한다.

2.7 서비스

아카이브의 목적은 수집된 자료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데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집된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것인가에 있다. 서비스 유형은 열람, 편찬, 전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전시나 편찬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료 본연의 정보 외에도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11) 이경남,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서울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Ⅲ. 아카이브 운영 사례 분석 및 수요조사

1. 지역학센터 아카이브 사례

1.1 제주학아카이브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 아카이브 개요

- 2012. 8월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13. 4월 제주학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http://www.jst.re.kr>)
- 2013 ~ 2017년 현재 46,829여건의 문헌,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구축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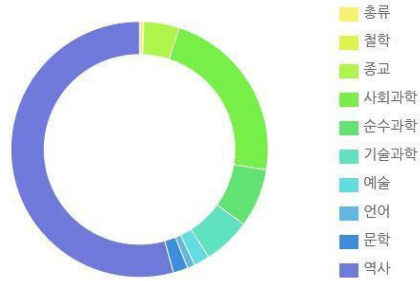
○ 현재 '제주학아카이브' 46,829여건의 제주학 자료 구축 및 공개하여 연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서비스 제공

- 규장각 소장 '제주읍지' 등 고문서와 고지도 디지털화 : 고문헌 60건, 고지도 11건
- 제주학 연구물 : 단행본 338건, 보고서 658건, 논문 2,731건, 정기간행물 426건
- 작가의 제주 관련 사진 등 개인기증 사진자료 7,462건
- MBC, KCTV, KTV 기증 역사관련 동영상 756건 및 역사 기사 등

○ DB 분류체계¹²⁾

- 분야별정보 : 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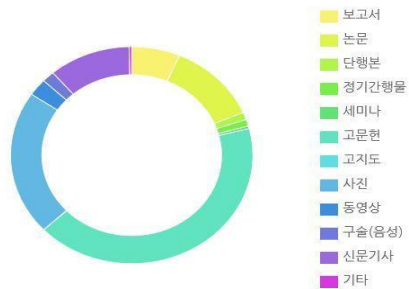
| 분류 | 건 | 비율 |
|------|-------|--------|
| 총류 | 245 | 0.52% |
| 철학 | 8 | 0.02% |
| 종교 | 2097 | 4.48% |
| 사회과학 | 10561 | 22.55% |
| 순수과학 | 3454 | 7.38% |
| 기술과학 | 2810 | 6% |
| 예술 | 933 | 1.99% |
| 언어 | 447 | 0.95% |
| 문학 | 870 | 1.86% |
| 역사 | 25404 | 54.25% |



<그림 III-1> 제주학연구센터 분야별 자료구축 현황

- 유형별정보 : 보고서/논문/단행본/정기간행물/세미나/고문헌/고지도/사진/동영상/구술(음성)/신문기사

| 분류 | 건 | 비율 |
|--------|-------|--------|
| 보고서 | 3019 | 6.45% |
| 논문 | 5683 | 12.14% |
| 단행본 | 509 | 1.09% |
| 정기간행물 | 472 | 1.01% |
| 세미나 | 187 | 0.4% |
| 고문헌 | 19596 | 41.85% |
| 고지도 | 11 | 0.02% |
| 사진 | 10090 | 21.55% |
| 동영상 | 1194 | 2.55% |
| 구술(음성) | 784 | 1.67% |
| 신문기사 | 5122 | 10.94% |
| 기타 | 162 | 0.35% |



<그림 III-2> 제주학연구센터 유형별 자료구축 현황

12)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www.jst.re.kr) 참조.

○ 특징 및 시사점

- 지역학이라는 주제로 아카이브를 구축한 첫 사례로의 의의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어 기록물 수집의 근거가 확실함
- 아카이브 분류체계가 KDC와 유형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어 분류가 다소 포괄적이며 모호한 부분이 존재

1.2 인천학 아카이브 : 인천학연구원

○ 인천학 아카이브 구축 개요

- 2014~2017년 : 인천학 관련 지역자료 수집
- 2018년 6월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https://idmap.inu.ac.kr>)

○ 대상자료

- 기존 자료 관리에 집중되어 있던 아카이브를 지도기반 인천학 아카이브로 구축
- 저작물 : 130여점(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제작, 일본어)
- 엽서 및 사진 : 600여 점
- 지도 : 140여 점
- 텍스트 자료(문서, 신문, 서적, 문학 등), 이미지 자료(엽서, 사진, 삽도 등), 지도 자료(근대지도, 지적도, 지형도 등)로 분류

○ 특징 및 시사점

- 텍스트, 이미지, 지도 등 각종 지역학 자료에 각각의 위치 정보(좌표, 주소, 법정 동, 지명 등)를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상에 해당 자료의 위치를 지정
- 지역학 자료들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약 10년 단위로 시기별 지도를 배열하고 이를 겹쳐볼 수 있도록 '디지털 인문지도'를 설계
- 이처럼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지역학 자료에 담긴 위치 정보를 지도에 정확히 링크시켜줌으로써 지표 공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도에

표시된 주요 역사문화유산에 관한 인문학적 지식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디지털 인문지도는 지역학 자료에 담긴 장소성과 시간성을 한눈에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음

1.3 경기도메모리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경기도 메모리 구축 개요

- 2001년 개관 :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운영
- 2005년 사이버도서관 서비스 개시 : 2002년 실시된 국가 정보화사업 결과물(공공 도서관 자료DB) 수집, 이를 '경기도DB'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시작
- 2014년 경기도 메모리 운영 : 본격적인 아카이브 사업으로 전환(2018년 초 아카이브 기반 홈페이지 개편, <https://memory.library.kr>)
- 운영인력 : 팀장, 전산담당, 독서파트, 사서 등 4명으로 구성

○ 대상자료

- 단행본, 보고서, 원고, 지도, 만화, 포스터, 기록사진, 시청각 자료, 음악, 역사 책 등
- 경기도의 자치단체와 문화기관 등에서 생산한 장서와 기록물뿐만 아니라 개인기록물 까지 광범위하게 수집(경기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연대기적인 사건, 사람, 장소, 사상에 대한 기록 수집)

○ 특징 및 시사점

-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
-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목록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연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과 개인기록물을 함께 수집하고 있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체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1.4 공주학 아카이브 : 공주학연구소

○ 구축 개요

- 공주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연구기관의 기록과 더불어 공주 기관 및 시민 등의 기록을 기록화를 통해 공주학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자료 또한 수집하여 역사, 지리, 방언, 환경, 교육 등 여러 측면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http://kjha.kongju.ac.kr/archive>)

○ 대상자료

- 도서·간행물류(고서 및 사료집, 논문, 도서·간행물 기타, 도서·간행물 전자파일, 리플릿 및 팸플렛, 신문, 일반도서, 잡지, 학회지)/문서류(고문서, 메모, 문서 기타, 문서 전자파일, 서신, 일반문서)/박물류(도면, 박물기타, 서예·탁본, 스크랩북, 포스터)/사진류(사진 기타, 사진 전자파일, 사진앨범, 필름사진)/시청각류(CD·DVD, VHS, 시청각 전자파일)로 분류
- 소장기록 중 특별 전시용으로 선별한 전시 콘텐츠인 ‘전시보기’에는 VR, e-book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 계룡산 컬렉션, 공산성 컬렉션, 금강 컬렉션, 백제문화재 컬렉션, 새마을운동 컬렉션, 제민천 컬렉션, 학교 컬렉션 등 주요 주제별 기록 컬렉션 제공

○ 특징 및 시사점

- 아카이브 구축 이전부터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구축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 진행
- 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인 점으로 인해 공공기록물 수집 보다는 민간기록물 위주의 수집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구성원에 대한 아키비스트 교육을 통해 지역의 일상기록을 수집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2. 강원지역 내 아카이브 구축 사례

2.1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 개요

- 주관기관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고문서연구센터(<http://cksm.kangwon.ac.kr>)
- 2015년에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에 선정, 2단계 6차년 사업으로 진행
- 1단계(2015~2018.7) 사업은 진행 완료되어 총 2,125건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2018.8 ~2022) 사업 진행 중에 있음

○ 대상 자료

- 강원지역 소재 고서·고문서
- 기본정보, 안내정보, 상세정보, 이미지, 원문 텍스트 등 제공
- 역사문화콘텐츠 : 인물과 생활, 경제와 소통, 학문과 교유 등 DB화된 고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

○ 특징 및 시사점

-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된 자료의 축적량이 상당하며 그 가운데 가치가 높은 고서 및 고문서를 선별하여 DB화를 진행하고 있음
- 자료에 대한 정보를 기본, 안내, 상세 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일반 시민과 연구자 등 이용 대상층별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서나 고문서에 대한 원문 텍스트화, 해제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강원도 고서 및 고문서 등 1차 사료에 대한 접근성 용이

2.2 아리랑아카이브 : 정선 아리랑 연구소

○ 개요

- 총 1,500여점의 수집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화 완료

- 아카이브는 1인 체제로 운영 : 자료검토-보수-사진작업(포토샵)-메타데이터 작성 등의 일련 과정이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전문 인력 부족으로 혼자서 진행
- 하루 5건 정도 업로드 : 소장 자료는 많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 진행상 한계가 있음
- 예산 : 3천만 원 소요(해외조사, 도서 발간 비용)
- 해외 자료수집 : 1년 2회(중국, 러시아, 일본, 중앙아시아, 멕시코, 쿠바 등)
- 소장자료 위주로 아카이브화(<http://arirangarchive.com>)
- 해외동포 아리랑 총서 발간(현재 총 4권 발간 완료) :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발간
- 아리랑 로드 다큐멘터리화 작업 진행 중 :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3부작 방영 예정

○ 대상 자료

- 국내외 아리랑 관련 자료(아리랑 관련 음원 200여점, 음반 3,000여점, 필름 15,000여점, 도서 6,000여권, 생활사 자료 1,000여점 등 소장)
- 문헌서지/악보가사/음반/음원/연극영화/음향기기/생활자료/서화/사진·엽서 등으로 분류

○ 특징 및 시사점

- 아리랑이라는 특화된 주제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자료를 망라하여 수집·제공
- 소장 자료를 DB화하여 웹상에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도록이나 연구물로 발간하고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1인 체제로 아카이브 구축·운영하고 있어 인력 부족의 한계가 있음

2.3 강원아카이브 :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¹³⁾

○ 개요

- 2009년 원주24도시기록프로젝트(전문예술단체) 창립
- 2013년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창립 : 시민기록가들이 출자
- 일반 협동조합은 활동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
- 매일 셋째주 목요일 워크숍 개최
- 1년에 1개 면을 정하여 마을조사, 인터뷰, 기록사진 수집 및 촬영 등 작업 후 출판 : 호저면 지역기록화사업(2017), 지정면 지역기록화사업(2018) 등
- 지역기록문화축제 운영 :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전시, 아카이브 세미나 개최(2018년 원주24도시기록프로젝트 10주년 기념사업)
- 기록문화시민학교 운영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기록화작업 진행, 횡성 정금 문화마을, 영월 한반도면 쌍용마을, 북면 마차리 폐광촌기록프로젝트, 원주 중앙시장과 원도심 기록화사업, 협동조합 도시 원주아카이브 등

○ 대상 자료

- 원주 지역 사진, 구술자료. 1년에 한 면을 정하여 마을조사, 인터뷰, 기록사진 수집 및 촬영 등을 거쳐 출판·전시

○ 특징 및 시사점

- 지역 기록화사업을 통해 횡성 정금문화마을, 영월 한반도면 쌍용마을, 북면 마차리 폐광촌기록프로젝트, 원주 중앙시장과 원도심 기록화사업, 호저면 지역기록화사업, 지정면 지역기록화사업 등 출간
- 시민 스스로 마을 조사 및 사진촬영, 기록 등을 수행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민으로써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등 시민기록가들의 역할 제고
- 사진 및 구술자료가 많이 수집되었으나 이를 목록화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3) 실제 웹상에서 아카이브를 구축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아카이브 활동을 지원하고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 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 아카이브 사례로 선정하였음.

3. 아카이브 운영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앞서 살펴 본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의 중요성이다. 이는 지역학 아카이브나 지역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카이브에서 지향해야 할 점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카이브 구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으로 파악된다.

도내 18개 시군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아카이브 주체의 노력과 실행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회나 세미나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지역학 연구기관, 도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아카이브의 구축 이전부터 연구자 모임 등을 결성하여 아카이브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자료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의 존재는 자료 수집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수집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제주시와 전주시 단 두 곳 뿐이다. 이러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수집활동은 수집의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카이브 구축시 법적 기반의 마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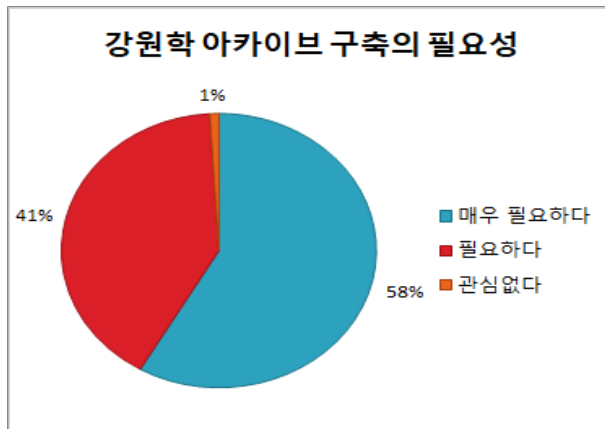
셋째, 아카이브는 단시간에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원 자료를 가공하여 콘텐츠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까지 일련의 전문적인 작업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때 전문 인력의 경우 생산과 수집능력, 자료 해석능력, 선별능력, 활용능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아카이브 관련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보관 장소는 물론 아카이브화 작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결국 도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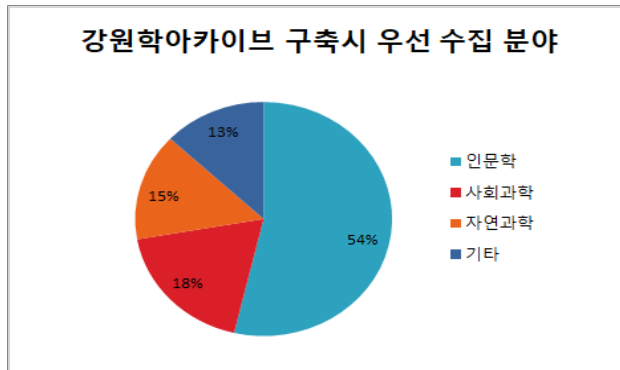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주요 기능, 우선 수집 분야 등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시 주요 이용자층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내 소재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고, 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통해 강원도내 주요 이용 대상자들이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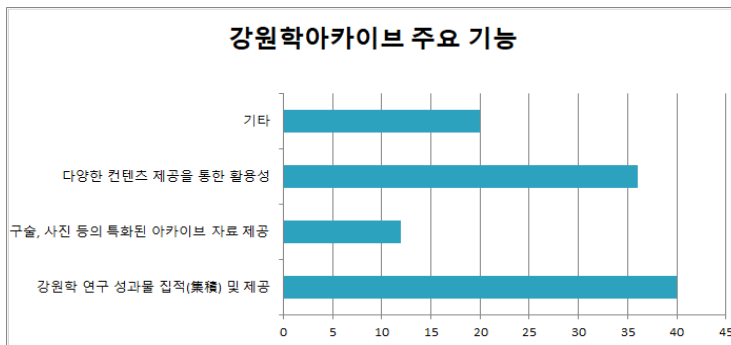
<그림 Ⅲ-3>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에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우선 수집분야를 두어야 한다면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인문학으로 응답하였고, 사회과학 분야 18%, 자연과학 분야 15%의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 중에는 모든 분야를 함께 아울러서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존 학문 분류와는 무관하게 '강원학'의 취지에 부합하는 분야를 우선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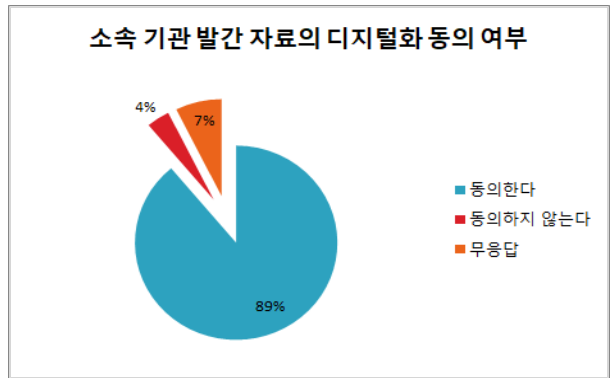
<그림 Ⅲ-4>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시 우선 수집 분야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시 주된 기능에 대한 질문에는 ‘강원학연구 성과물 집적(集積) 및 제공’에 대한 응답률이 전체의 3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높은 순위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한 활용성’이 33%, ‘구술·사진 등의 특화된 아카이브 자료 제공’이 19%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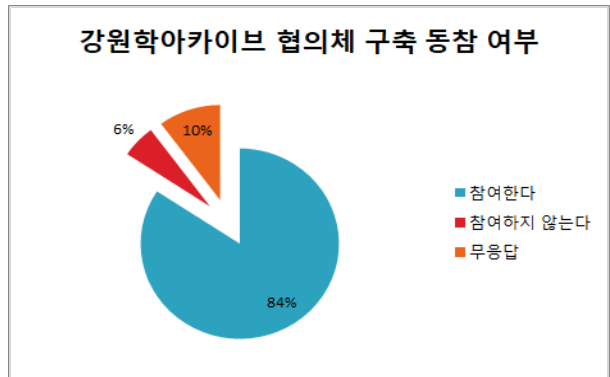


<그림 Ⅲ-5> 강원학 아카이브 주요 기능

이를 통해 강원학 아카이브의 주요 기능은 강원학 연구 성과물을 집대성하여 제공하고, 자료를 가공하여 콘텐츠화를 통한 활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제시한 기능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복 기능을 표기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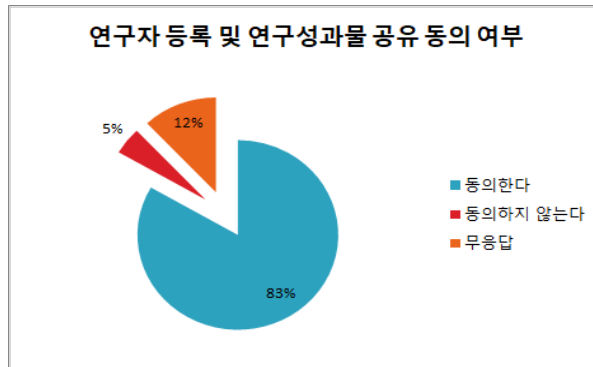
<그림 Ⅲ-6> 소속 기관 발간 자료의 디지털화 동의 여부



<그림 Ⅲ-7> 강원학 아카이브 협의체 구축 동참 여부

응답자의 소속 기관 발간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 및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원학 아카이브 협의체 구축에 동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84%가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시 자료 제공 및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개인 연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원학 아카이브를 통한 연구자 등록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8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8> 연구자 등록 및 연구성과물 공유 동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시 주요 이용자로 예상되는 응답자들은 강원학 아카이브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강원학연구 성과물을 집적하고 제공하는 것을 아카이브의 주된 기능으로 하여 인문학 분야를 우선 수집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가 강원학 아카이브의 협의체 구축 시 자료 제공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연구자 등록 및 연구성과물 공유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의견으로 객관적인 근거와 심도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성과 다각도의 식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분야를 한정짓기 보다는 강원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소실 염려가 있는 자원부터 수집, 희소하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IV. 강원학 아카이브 개요

1.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주체

강원학이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원학에 대한 연구방법의 정립과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은 바로 강원학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물이 수집되고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강원학 아카이브를 통해 각 영역에서 활용되어 지역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강원 지역민이 지역의 역사와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 자양분으로 기능할 것이다. 때문에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토대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 구축이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에는 민간 부분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매우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또한, 강원학 아카이브를 한 곳에 모으고 조직화하는 데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별 특징에 따른 수집과 공유의 수준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도 요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누가, 어떤 기관에서 주체가 되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예산 지원, 인력, 자료수집의 범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아카이브 구축은 앞서 살펴본 아카이브 운영 사례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 소속 기관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되면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관심을 통해서 아카이브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¹⁴⁾ 이러한 차원에서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의 주체를 도 기록관, 대표도서관, 지역학연구센터 등으로 좁힐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건립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자체 기록원이 있는 곳은 경상남도가 유일하다.¹⁵⁾ 강원도 차원에서 도 기록관을 구축하여 관·민간 기록물 모두를 수집하여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표도서관은 광역시 및 시도 등은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설립 운영되는 도서관을 말한다.¹⁶⁾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와 같이 보유 장서의 DB화가 가능한 도서관에서 강원학 관련 연구물을 수집하여 관리 및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원도 대표도서관은 춘천시립도서관으로 2018년 12월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지역학연구센터인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강원학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강원학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강원학 연구센터는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기반으로 2017년 재설립되었다.

강원학 아카이브는 강원학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연구 성과의 확산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연구 성과의 다양한 콘텐츠로의 개발을 통해 일반 이용자에게도 강원학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강원도를 이해하고 미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구이다. 현재 도기록관 설립 계획이 불투명하고, 대표도서관으로써 아카이브 구축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강원학 아카이브의 구축 주체로 강원학연구센터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14) 실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제주학아카이브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메모리의 경우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기록관이 경기기록원으로 설립하고자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서울시도 2019년 기록원을 개원할 계획에 있다.

16) 도서관법 22조.

2. 강원학의 개념 및 범위

지역학이 대두되면서 지역학이란 무엇인지, 지역학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려는 논의는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만 이루어진 채 지금까지도 지역학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연구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을 규정할 때 여러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중 흔히 행정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지역의 명칭 뒤에 학을 붙여 '○○학'으로 명명하는 것에서 지역학의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학이 추구하고 있는 의미는 문화지역의 의미에서 인접 지역과의 역사적·문화적 관련성을 연구 범위에 포함시켜서 인문자연 환경적 영역으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볼 때, 강원학의 연구 범위는 첫째, 지리적 개념에 의한 구분 즉, 강릉학, 원주학, 춘천학 등과 같이 강원도 지역의 18개 시·군의 각각의 행정 구역상의 범위마다의 개별적 지역 연구가 가능하다. 둘째, 문화·역사적 인식을 토대로 영동권, 영서권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연구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 간의 상호 연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권역의 중심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이는 타 도와 대별되는 특수성이나 주제에 따른 비교 연구 등이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¹⁷⁾

이처럼 강원학은 강원도의 지역적 정체성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단순히 강원도의 역사적인 요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강원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망라하고 있는 학문이다.

강원학 개념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먼저, 김병철(2000)은 강원학은 강원도라는 행정적·지리적 단위 안에서 삶을 공유하고 있는 강원인이 주체가 되어, 강원도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현재와 미래 발전

17) 오영교, 「강원연구와 강원학」, 『강원도사』18, 2017.

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적 지향 및 활동으로 정의하였다.¹⁸⁾

김정현(2017)은 강원학의 개념에 대해 강원도라는 독특한 자연·지리적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온 강원인의 유·무형 문화를 총체적으로 분석·고찰하는 복합학문이며,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강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강원인에게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고, 강원만의 현재와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문으로 규정하였다.¹⁹⁾

2017년에 마련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는 강원학을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⁰⁾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원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강원학의 대상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강원학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선사시대 ~ 현재에 이르는 전 시대
- 공간적 범위 : 강원지역
- 주제별 범위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 제주학의 정의²¹⁾

-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18) 김병철,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0.

19) 김정현, 「강원학에서의 지역사(地域史) 연구 위상과 과제」, 『江原史學』29, 2017.

20) 강원도조례 제4152호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2013.3.20.제정) 제2조(정의) 1항.

3. 강원학 아카이브 대상

강원학 아카이브는 ‘강원학’과 관련된 모든 자료 중 일정한 선별 기준과 목적에 따라 수집, 평가, 분류를 거쳐 선정된 자료를 의미한다. 자료의 유형은 크게 문헌자료(단행본, 논문집, 연구보고서, 학술발표 자료집 등의 연구물과 정기간행물, 기타 등), 고문서·고서, 구술자료, 영상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헌자료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서, 연구, 석·박사 학위논문, 국내 각 대학·연구소·학회·연구회 및 기타 연구 관련 기관과 출판사가 간행하는 학술지, 논문집, 단행본 등에 수록된 일반논문 및 단행본, 연구 및 조사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도(道)와 각 시(市)·군(郡)에서 발간하고 있는 도지(道誌), 도사(道史)와 각 시군지(市郡誌) 등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행정, 관광, 산업 등 지역을 총망라하는 자료의 보고라는 점에서 강원학 아카이브의 중요 수집대상이 된다.

고문서·고서·고지도의 경우는 강원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로, 강원도와 관계되는 사람의 저서나 강원도가 글의 배경 또는 주제나 소재로 되어 있는 전적(典籍) 또한 그 대상이 된다.

근현대시기에 작성된 신문, 잡지, 도면, 카드 등의 자료도 강원학 아카이브 자료에 해당되며, 그 밖에 구술 녹취,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도 모두 포함된다.

4. 강원학 아카이브의 주요 업무

4.1 기본 업무

강원학 아카이브는 업무·기능면에서 기획·운영, 수집, 보존, 활용 등 4개 업무로 구성·운영된다.

먼저, 기획·운영 지원 업무는 강원학 아카이브의 사명 및 비전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강원학 아카이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고 필요 인력을 충원·관리하는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수집 업무는 강원학 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맞도록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강원학 아카이브 수집 대상 자료를 명확히 하고, 수집 전반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구축 대상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연구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선별 및 평가를 통해 아카이브를 수집한다.

보존 업무는 수집된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지적 통제와 물리적 통제를 통해 자료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카이브의 DB화를 수행하는 업무 역시 보존 파트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활용 업무는 수집·보존되고 있는 자료를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물 자료의 열람이나 전시·편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기획·운영지원 | 수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명·비전 관리 • 정책·전략 조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운영 • 시설·장비·인력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학 전수조사 및 연구자 DB 구축 • 수집정책·전략 수립·운영 • 수집, 선별·평가 |
| 보존 | 활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정책·전략 수립·운영 • 기술 • 실물 정리·보존 • 디지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운영 • 실물 열람 제공 • 전시·편찬 • 연구지원 |

4.2 단계별 추진 업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고, 전문성을 기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카이브 구축 절차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강원학 연구의 지식 자산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계별 주력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2018~2019) : 강원학 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

-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강원학 자료 전수조사 및 목록화
- 강원학 아카이브 우선 수집대상자료 수집 및 DB화
- 강원학 연구자 정보 DB화(계속)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자료기증·위탁 공개모집)
- 강원학 아카이브 자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협의체 구성·운영
- 강원학 아카이브를 위한 연구기획
-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 기획·설계

제2단계(2020~2022) :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자료기증·위탁 공개모집)
- 강원학 아카이브 우선 수집대상자료 DB화(계속)
- 강원학 연구자 정보 DB화(계속)
- 아카이브 자료 보존실 구비
- 강원학 아카이브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구축
- 강원학 아카이브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단계(2023~2025) : 강원학 아카이브 정착기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자료기증·위탁 공개모집)
- 강원학 아카이브 우선 수집대상자료 DB화(계속)

- 강원학 연구자 정보 DB 업그레이드(계속)
- 강원학 아카이브 자료 콘텐츠화(ex. 인문지도 등)
- 강원학 아카이브 자문위원회 운영
- 강원학 아카이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SWAT분석)

제4단계(2026~2028) : 강원학 아카이브 발전기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자료기증·위탁 공개모집)
- 강원학 아카이브 우선 수집대상자료 DB화(계속)
- 강원학 연구자 정보 DB 업그레이드(계속)
- 강원학 아카이브 자료 콘텐츠화
- 강원학 라키비움 설립

위와 같이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10여년에 걸쳐 총 4단계로 나뉘어 단계별 주요 추진 업무를 구상하였다. 1단계는 강원학 아카이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한다. 2년여에 걸쳐 강원학 관련 자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강원학 자료의 특성 분석을 통해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제반 기준안을 수립하고 아카이브 시스템을 기획·설계하는 등 체계를 갖추어 가는 시기이다.

2단계는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시기이다. 아카이브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아카이브 구축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구축하는 등 실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3단계는 강원학 아카이브의 정착기로 설정하였다. 기 구축된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원학 자료를 지속적으로 DB화 하고 업그레이드 하며 안정성을 도모한다. 한편으로는 강원학 아카이브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더욱 발전하는 강원학 아카이브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4단계는 강원학 아카이브의 발전기이다. 구축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화

하여 이용자들에게 강원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강원 지식의 자산화를 실현하는 시기이다.

이상과 같이 준비기-구축기-정착기-발전기 등의 4단계로 설정한 강원학 아카이브 단계별 주요 추진 업무를 살펴보았다.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평가하여 DB화하는 업무는 모든 단계를 아울러 강원학 아카이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항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V. 강원학 아카이브 단계별 전략

1. 수집정책

1.1 목표

지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학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성을 전해주는 지역의 자료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전통이나 역사·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초 단계는 객관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이다.

강원학 관련 자료는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생산·관리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 소장 자료나 공개되지 않은 자료 혹은 희귀한 자료들이 사라지거나 공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강원학 연구 성과를 한 곳에서 집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왔다.²²⁾

22) 강원학연구센터에서 학계, 문화원, 문화재단, 박물관, 관련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한 순회세미나에서도 강원학 관련 자료의 취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강원학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강원학 아카이브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순회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원학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것이 강원학연구센터의 중점 분야로 꼽고 있으며, 강원학 연구 결과의 향유 방안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강원학 연구 결과의 활용성 제고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 연구관리 기관에 투자되는 연구비 총액이 증가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 지원으로 생산된 연구자료가 사장되지 않고 수집체계를 갖추어 보존될 수 있다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국고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실제 연구자료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해서 자료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체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강원학 아카이브의 구축 목표를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²³⁾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목표

- 강원학 관련 자료의 총체적 수집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강원학 연구 토대를 조성하고 학문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
- 강원학 연구물의 공유와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문화 자원 기반구축으로 활용성의 극대화
- 강원학과 연관된 모든 자료는 강원학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원학의 정보화 및 지식 자산화 추구
- 국제표준을 준수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아카이브 구축

이와 같은 목표 하에 강원학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강원학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연구자 정보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강원도 전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강원학의 정보화 및 지식 자산화를 최종 지향점으로 두고자 한다.

23) 강원학 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강원학 아카이브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보강할 수 있다.

1.2 수집방법

자료의 수집은 크게 구입, 기증, 위탁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먼저, 구입은 법적, 물리적 보관권 이전을 위해 합의에 의한 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입이 결정되면 자료에 측정된 가격을 조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구입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자료에 대한 검증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 받는 것도 방법이다.

자료의 구입과 동시에 자료의 사용권이나 저작권, 출판권 등이 모두 일괄 구입되는 것인지, 일부 권한만을 구입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시 소장자에게 자료의 법적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자료의 법적 권한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한편, 기증은 어떠한 보상도 없이 법적, 물리적 보관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자발적 기증과 권유에 의한 기증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자료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소장자나 생산자, 연관자를 추적하여 기증을 유도하는 권유에 의한 기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증에 따른 수집은 조건없이 기록물을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적 권한을 성문화하는 데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기증에 의한 수집인 경우에도 자료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적 권한까지 세밀하게 성문화하여 기증 이후에도 소장자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권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위탁은 기록에 대한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고 물리적으로만 이동하는 수집 방법이다. 어떠한 보상도 없이 법적·물리적 보관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므로, 위탁은 자료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다.

1.3 수집대상

강원학 아카이브는 우선적으로 강원학 관련기관의 연구물과 강원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연구물에 대해 수집을 진행한다. 강원학 연구 결과 물로는 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및 간행본, 세미나 자료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강원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록물 또한 수집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강원학 관련 자료를 이용하려는 연구자나 이용자에게 있어 강원학 연구물로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여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역사, 문화, 행정자료를 우선 수집대상으로 선정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웹상에서 PDF파일의 형태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DB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가능하다면, 연구 결과물에 따른 자료 형태의 산출물, 즉 연구 데이터로 조사자료, 이미지, 동영상, 녹음자료, 수치자료, 낱장자료 등도 수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강원학 자료 소장처는 관공서, 공공기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대학, 연구기관, 학회, 연구단체, 개인 등으로 분류된다.

<표 V-1> 강원학 자료 소장처

| 구분 | 소장처 | 소장자료 |
|------|----------------------|----------------|
| 행정기관 |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군청 | 행정, 보고서, 사진 등 |
| 공공기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 문화, 역사, 보고서 등 |
| 문화기관 | 문화원, 문화재단, 예술단체 등 | 정기간행물, 보고서 등 |
| 학술기관 | 대학, 연구기관, 학회, 연구단체 등 |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 |
| 민간 | 단체, 개인 등 | 개인기록물, 보고서 등 |

관공서의 경우는 강원도청 및 강원도 18개 시·군청이 해당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경우 정책의 수행 과정 및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조사·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국가정책 입안 및 주요 행정

참고자료로도 활용 가능한 자료들이다. 대체로 연감, 백서류, 통계집류, 업무편람, 사업 보고서, 연구·조사·검토보고서, 사료·연혁집, 기관지, 교육자료, 회의자료, 목록류, 연설·강연집, 전시·도감·화보집 등의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통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까지도 포함된다(통계법 제3조).²⁴⁾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 소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해당된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있다.²⁵⁾ 특히 향토자료 등의 지역자료의 수집이 이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장처이다.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²⁶⁾ 강원도 내 설립된 박물관은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유·무형의 자료를 소장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시·교육은 물론 도록이나 연구서 등을 발간하고 있어 이 역시 지역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 내 18개 지방문화원 및 강원도 문화원연합회가 해당된다. 문화원은 지역문화(향토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장자료, 발간도서, 연속간행물, 사진, 박물관 등 다양한 지역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지명 유래집, 지역문화지, 지역사료총람, 마을지 등의 형태로 지역향토사, 지역문학지 등을 발간하고 있어 중요 지역자료 소장처이다.²⁷⁾

24) 통계법 제3조.

25) 도서관법 제2조 제2호.

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제2조(정의).

27) 최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주관하에 문화원 소장자료를 목록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8개 시군 문화원 중 15곳이 참여한 사업으로, 이러한 자료의 공유를 통해 지역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자원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표 V-2> 강원도 내 문화원 정기간행물 현황

| 문화원 | 정기간행물 | 문화원 | 정기간행물 |
|-------|----------------|-------|-------|
| 강릉문화원 | 임영문화, 제일강산 | 양구문화원 | 양구문화지 |
| 동해문화원 | 동해문화원소식지(동해문화) | 인제문화원 | 인제문화 |
| 영월문화원 | 내성의 맥 | 횡성문화원 | 횡성문화 |
| 춘천문화원 | 춘주문화 | 고성문화원 | 고성문화 |
| 원주문화원 | 원주열 | 철원문화원 | 태봉문화 |
| 속초문화원 | 속초문화 | 홍천문화원 | 벌력문화 |
| 양양문화원 | 현산문화 | 평창문화원 | 평창문화 |
| 정선문화원 | 정선문화 | 태백문화원 | 태백문화 |

그 밖에 문화재단, 대학 및 연구기관이나 학회,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자료도 강원학 수집 자료의 대상이 된다.

1.4. 수집 자료의 범위

강원학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별, 분야별, 주제별로 강원지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강원학 자료의 분야와 범위도 방대하다. 때문에 자료 수집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강원학 아카이브 대상자료 전수조사를 통한 강원학 관련 자료의 목록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여러 기관이나 단체 등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어디에 어떤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원학 자료의 현황 파악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 |
|-------------|--|
| 강원학 자료 전수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보유 정보와 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 자료 소장처 파악 □ 소장처 별 자료의 내용 및 관리 수준, 보존 현황 정리 |
|-------------|--|

강원학 자료의 전수조사는 우선 강원학 자료의 소장처를 파악하고 각 소장처에서 생산된 자료 목록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소장처 별 자료의 내용이나 자료의 관리 수준 및 보존 현황에 대한 사항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수조사 시에는 강원도 내 소장처의 자료는 물론, 타 지역의 강원도 관련 자료, 국가기관에서 수집한 강원도 관련 자료와 더 나아가 다른 국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 강원도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수조사 역시 시간과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강원도 내 소장처 파악, 타 지역 자료, 타 국가 자료로 단계적으로 수집 범위를 넓혀 시행하도록 한다.²⁸⁾

<표 V-3> 단계별 자료 수집 전략

| 수집 대상 자료 |
|-------------------------------------|
| 강원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 자료 |
| 강원도 18개 시·군 문화원, 박물관, 기타 기관 및 단체 자료 |
| 국내 타 지역 소재 강원도 관련 자료 |
| 국외 소재 강원도 관련 자료 |

이때, 강원도와 관련된 원(原)자료 즉, 역사자료나 문헌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와 근현대사 자료 수집을 위한 구술채록 등의 분야에 대한 자료현황 파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강원도 관련 기초 사료(신문기사 포함)를 번역·출판한 자료는 강원도의 중요한 역사 자료이자 원천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DB화하여 서비스 제공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도사(道史), 시·군지(市·郡誌), 읍면동지(邑面洞誌) 등은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한 곳에 집적한 지역 자료의 보고(寶庫)로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현대 지역의 변화상에 대해 문헌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구술 채록을 통해 다채롭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미 구술 채록은 다양한 연구 분야

28) 물론 자료 수집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수집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범위에 주안점을 두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 것일 뿐,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수집·정리하여 DB화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지역단위의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정비 등 지역 통계 자료에 대한 사항,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등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강원 지역 소재 대학이나 연구기관, 단체 등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해 모은 자료에 대한 수집도 필요하다. 역사, 민속, 언어 등의 분야는 지역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오랜 기간 연구한 연구자들의 경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축적한 지역자료가 상당한 양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원로 학자의 경우 별도의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지역 자료를 수집·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기증 혹은 위탁을 받아 DB화하여 제공한다면 보다 가치있고 심도 깊은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강원도 자료 기증 사례

- 석우(石牛) 박민일 박사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등 자료기증
석우(石牛) 박민일 박사는 국내 최초로 아리랑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연구하여 '아리랑 박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1950년대부터 역사·문화·예술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삼국시대 토기부터 고려시대 청자, 조선시대 백자와 민속품 그리고 현대의 역사·문화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였다. 2011년 평생 수집한 귀중한 자료 1만 7백 여점을 양구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화콘텐츠 업계와 일반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미지 자료 등)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도 있다. 자료의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소장 자료를 단순히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가공되어 유용한 지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부터 자료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기획·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능한 관심도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정보자원으로의 활용성이 높은 자료를 우선 선별하여 디지털화 하는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1.5 선별 및 평가

강원학 자료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자료를 아카이브화 하기는 어렵다.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모든 자료를 아카이브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므로, 자료에 대한 수집기준을 세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자료를 먼저 수집하여 아카이브화할 것인가는 보존가치와 이용가치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표 V-4> 강원학 아카이브 평가 기준(안)

| 기준 | 설명 |
|-----|--|
| 적합성 | 수집대상이 강원학 아카이브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범위와 일치하는지 정도 |
| 희소성 | 강원학 연구에서 희소한 정도 |
| 특수성 | 강원의 특수성이 드러나 있는 정도 |
| 정보성 |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고 풍부하며 자기완결성이 있는 정도 |
| 활용성 | 열람, 전시, 콘텐츠화, 학술연구 등 활용도 |
| 보존성 | 자료의 형태, 재질, 비용 면에서 수집보존에 적합한 정도 |
| 가중치 |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강원학 연구에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수집가치가 있는 경우 |

수집기준으로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강원학 아카이브 수집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수집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물을 수집한다면 아카이브에 있던 기존 연구물에 대한 맥락이나 아카이브의 목표를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집범위의 해당 여부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희소성은 강원학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희소한 가치가 있는 점인지를 판단하는 척도이다. 특수성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특징이 드러나 있는 정도를 판단한다. 정보성과 활용성은 연구물에 들어있는 정보가 풍부할수록 학술적 가치와 그로 인한 새로운 연구와 열람 및 콘텐츠와 같은 활용도 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강원학 관련 연구성과물의 경우 공적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구 가치, 역사적 가치, 유일성, 경제적 비용 등 10개의 평가 영역으로 장기보존 대상 연구기록의 평가선별 기준을 제시한 아래 표도 참조할 만하다.²⁹⁾

<표 V-5> 장기보존 대상 연구기록의 평가선별 기준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대상 기록 예시 |
|--------|--|---|
| 연구가치 | 해당 분야 연구에 중요한 핵심 데이터 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영향력있는 과학적 정보이자 평가로 인정받은 연구의 기록 - 현재 및 미래의 높은 연구 활용도가 기대되는 데이터 - 미가공 원시데이터 |
| | 연구 분야의 미래 요구/방향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가 | |
| | 기존 데이터를 보완하여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가 | |
| |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 | 연구 분야의 현재 프로젝트 또는 트렌드를 지원하는가 | |
| 역사적 가치 | 데이터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가 즉, 데이터는 의미있는 과학적 발견의 지표 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과학적 논쟁과 관련된 기록 - 해당 분야 연구 활동을 눈에 띄게 변화시킨 선례 -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주제의 기록 |
| | 데이터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중요한가 | |
| | 해당 분야 연구를 변화시킨 중요한 선례로서 의미를 가지는가 | |
| 유일성 | 자료의 내용이 유일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획득이 불가능한 기록 - 대체가 불가능한 원시데이터 - 장기 수집한 연구데이터 컬렉션 |
| | 고유하여 반복될 수 없는 환경에서 측정되었는가 | |

29) 이미영, 「공적(公的)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기록 평가기준 연구」, 『기록학연구』46, 2015, 표8 참조.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대상 기록 예시 |
|-----------------------|---|---|
| 충분한 기록화 | 탐색, 접근, 재활용을 위한 충분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데이터의 출처 및 활용 맥락에서 필요한 기술정보는 양, 품질,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가 | |
| 기록의 기본요건 유지 여부(이용가능성) |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 |
| |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사의 이슈나 이용 제한은 없는가 | |
| 기술적 고려사항 | 데이터의 현재 상태와 전반적인 품질은 어떠한가 | |
| | 이용가능한 포맷인가 | |
| | 데이터 이용에 필요한 장치(하드웨어)는 이용가능한가 | |
| | 암호화, 전자서명 등과 같은 보호 메커니즘은 충분한가 | |
| 미션과의 관련성 | 기관의 미션과 관련된 중요 데이터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국제적으로 새로운 정책에 수립에 중요한 기여를 한 기록 - 국가 또는 국제적인 관심 사안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기록 - 국가차원의 대규모 사업 및 조사와 관련된 연구 기록 |
| | 기관의 역할 및 정책, 전략과 관련한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가 | |
| | 기관의 컬렉션 정책에 부합하는가 | |
| 공공에 대한 기여 | 공공의 이익에 상당한 개선 결과를 가져 온 연구의 기록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경제, 사회적 발전 및 공공의 이익 개선에 중요한 공헌을 한 활동의 기록 |
| | 국가/국제적으로 우선 순위에 있는 정책, 과학, 경제, 사회적 이슈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 | |
| 중요 연구 성과 |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상을 수상한 연구의 중요 기록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을 수상한 과학적 연구조사기록 - 해당 분야에서의 지위를 널리 인정 받거나 국가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중요한 연구자의 업적 |
| | 해당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의 기록인가 | |

그 밖에도 자료의 유형과 품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등급 평가 기준도 마련하여야 한다. 먼저, 예비 정리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관련 여부와 유형 등 판단하고, 등록 대상 자료 여부와 등급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내용 및 품질에 대한 1차 유형평가, 2차 내용평가 등으로 평가 단계를 설정한다. 각 평가 단계마다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여 자료에 대한 등급평가를 수행한다.

<표 V-6> 자료 등급 기준(안)

| 등급 | 정의 | 기준 | 활용 |
|--------|--|----------------------|---------|
| 주요 자료 | 강원학 관련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물, 사건, 단체 등에 관련된 사료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 | 내용평가 : 상 품질평가 : 상 | 원문 DB제공 |
| 일반 자료 | 강원학 관련 자료이나,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료 | 내용평가 : 중 품질평가 : 하 | 목록 공개 |
| 저가치 자료 | 일반 자료 | 내용평가 : 하 품질평가 : 하 | 폐기 |

우선 수집 대상의 판단 여부에는 저작권 문제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이거나 해결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수집대상으로 하여 수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강원도 내 기관 및 단체에서 생산되는 자료로 디지털 보존이 필요한 자료, 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이용이 증대되어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의 경우도 우선 수집대상의 선별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선별 및 평가 기준은 수집 기관의 목적, 자료의 유형, 범위, 상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강원학연구센터의 특색에 맞는 선별·평가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집 및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강원학 관련 전문가, 학문 분야별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총 10인 내외로 운영한다.

1.6 협의체 구성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할 때 강원학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거나 이미 이를 아카이브화하고 있는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아카이브 구축의 취지와 목표를 설명하고, 이용자이기도 한 잠재적 소장처 및 소장자에게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수집 및 축적,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 기증을 유도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다각적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강원학 협의체는 강원도, 18개 시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재단, 예술단체, 대학, 연구기관, 학회, 개인 연구자 등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협의체 구성은 자료 수집과 관련한 수집네트워크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운영네트워크로 구분이 된다. 수집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실행이 중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장기록에 대한 목록이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집 자료에 대한 중복이나 획득 여부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장기록물의 물리적 위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목록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집네트워크는 수집주체와 소장단체, 기관, 개인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네트워크는 수집 이후의 관리 및 결과물을 이용한 활용의 측면을 말한다. 아카이브 구축 결과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존 및 관리·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은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타 기관의 자료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강원학 포털의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개별 기관의 데이터를 유지한 채 연계를 위한 데이터 구조를 모델링하고 링크 정보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상이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를 공개, 연계,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링크 드 데이터의 방식이 유용하다. 링크 드 데이터는 개별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하여 복수 기관 간의 협업을 지원(공유 플랫폼)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창출하는 장점을 지닌다.³⁰⁾ 한편,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참여형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의 수집·보존·활용 등 전반에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유도하는 개념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즉, 이용자 일반의 참여를 중시하는데, 이

30) 현재, 경기도메모리의 경우 링크 드 데이터 방식으로 기존 유관기관의 자료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강원학 아카이브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에 못지않게 유관 문화기관의 참여를 중시함으로써 초기의 조속한 안정화와 지속적 수집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협업체 구성에 있어 중요한 점은 국가 또는 기관의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인 합의를 비롯한 연구가 필요하며, 국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계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1.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의 국가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
2.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3. 정부의 지원과 학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4.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수행을 통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협업기관의 협력의 필요성과 동기부여가 협력기관 간 차이가 있으므로, 요구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즉, 다수의 귀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과는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도모한다. 반면, 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관, 즉 귀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관과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 있다.

수집 대상 자료에 대한 분류기준과 원 자료의 보존에 대한 규정, 디지털 문서 및 이미지 자료에 대한 표준 규격, 디지털 자료의 활용에 대한 저작권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의 산출과 수급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등록

2.1 자료 분류

전통적으로 아카이브에서는 관리 대상 객체 사이의 맥락(context)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출처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해왔다. 수집협력기관 및 소장자/소장기관을 중심으로 자료간 맥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출처별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자료의 분류시 조직화와 내적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주제별 분류와 자료 소장 기관의 기능으로도 분류할 수 있도록 다중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분류표, 기록물분류표, 기타 주제별 분류표 등 다양한 종류의 분류 기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원학 아카이브의 특색을 반영한 분류체계의 개발해야 한다. 분류체계 개발 시에는 반드시 기록관리학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체 예상되는 수집 자료에 대한 통합 분류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2.2 기술

강원학 자료에 대한 기술은 대량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개별 자료들에 대한 표준과 통제용어의 사용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저자나 제작자, 표제 등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요소도 있지만 주제어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소러스 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소 수준의 요소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준용하되, 강원학 아카이브만의 기술규칙을 마련하여 강원학 아카이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도록 메타 데이터, 시소러스를 개발하고 인명과 주제명 전거제어 데이터를 구축한다.

3. 강원학 자료의 DB화

DB화는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콘텐츠 개발이나 이용을 위한 서비스, 장기보존 등이 가능한 형태로 디지털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DB화를 위해서는 통합성, 개방성, 보존성 등의 기본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 그리고 유형에 따른 표준 포맷을 정하여 장기적 보존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때 국제표준이나 공개된 비독점적 포맷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DB화 방법은 자료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지만, 복사를 통한 PDF 파일로의 변환이나 디지털 카메라 촬영을 통한 이미지화 방법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강원학 아카이브의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판단되는 책과 같은 유형의 경우 이를 복사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카메라 촬영을 통한 이미지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자 텍스트 유형의 경우에는 원문파일(HWP, DOC 등)을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³¹⁾ 또한, 사진이나 고문서 등도 복사나 디지털 카메라 촬영을 통한 DB화 방법이 가능하다. 그 외에 음성이나 동영상의 경우에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으로 인해서 아날로그 소리의 디지털 변환, 소리파일의 저장시스템 이관과 유지관리, 저장된 음향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등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준 포맷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적 소양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 아웃소싱 프로세스

견적문의 → 업체 방문, 견적 → 문서이관(업체) → 분류 및 분철작업 → 스캐닝
→ 이미지 검수 → 넘버링 및 파일 분류 → 납품 및 확인 → 문서 재제본/폐기

원본자료에 대한 이미지화가 완료된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 수집 자료가 고서나 고문서인 경우, 원문 텍스트화 및 전문 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밖에도 색인어 선별, 목차 및 해제 작성, 서지분류 등의 메타데이터 작성이 수행되어야 한다.

31) 이러한 과정에서 다단계 검수 및 보안을 통해 파일의 완전성을 검사하고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서비스

4.1 이용자 계층 분석

강원학 아카이브는 일차적으로 연구자를 위한 강원학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연구 자료를 가공하여 콘텐츠화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아카이브는 인력과 시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활용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용자 계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강원학 아카이브의 주요 이용자 그룹은 교수, 강사, 연구원 등의 연구자들과 대학원생, 학부생 등의 학생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관공서, 문화원, 문화기관, 학회나 민간단체 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상층으로 인식하여 포괄적인 이용자 그룹을 층위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도를 측정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4.2 연구자 중심의 활용 : 자료의 빅데이터화

강원학 아카이브의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연구자 계층의 경우에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자료의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축적만으로도 관련 연구에 대한 학술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축적된 연구 성과를 연구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통해 검색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연구데이터를 통한 강원학 연구 동향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연구 주제의 발굴이나 연구의 심화 등 다양한 형태로 강원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축적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연구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활용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자 측면에서도 편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의 수집을 통해 구축되는 아카이브라는 특색을 감안하여 연구자들에게 자료 이용 후 출처를 밝힐 수 있도록 인용방법을 제공하거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표준 식별체계 정보(DOI)를 제공하는 등 연구자를 위한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인용은 지적 소유권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식별체계 정보의 경우는 저작자 보호와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연구자에게 친화적인 통합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개별 연구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연구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연구성과물 공유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데이터의 보존 및 활용의 중요성 및 가치성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나아가 활용을 진작하기 위한 연구 성과물의 분석방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 콘텐츠 개발

이용자 계층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콘텐츠로 개발하여 제공한다. 콘텐츠는 자료 자체를 콘텐츠화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스토리텔링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가공 또는 재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료를 이용한 콘텐츠를 상품화하여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답사·여행 등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어 지역의 경제력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통한 대중 및 전문인의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4.4 라키비움형 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 방안으로 라키비움(Larchiveum)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기관으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을 수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는 2008년 메간 윈젯(Megan Winget)이 제시한 개념으로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하는 통합형 정보 제공 기관을 의미한다. 즉, 라키비움은 기존에 존재하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기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에서 탄생하게 된 새로운 협력 서비스 모델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³²⁾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은 조금씩 그 성격이 상이하다. 도서관에서는 현용 자료가 중심이 되고, 기록관에서는 보존을 목적으로 한 자료가 중심이 되며, 박물관은 실물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의 각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을 해당 기관에서만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 제공 기관의 구분 없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라키비움에서는 이 세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모두 수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원의 형태에도 구애받지 않아야 하므로,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및 웹 자원, 나아가 3차원 실물자료까지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32) 조현양,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5.

※ 국내 사례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라키비움

통합형 수집기관으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수집대상인 매체의 정보물을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수용하여 서비스하는 단일 복합기관의 개념으로서 라키비움을 도입하여 2014년 7월에 설립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라키비움의 구성은 청소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자력 연구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체험물과 전시물을 이용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자력체험관, 원자력 연구 기록물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전시한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학술지, 단행본, 연구기술보고서, 멀티미디어 정보 등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도 갖추고 있다.

강원학 아카이브도 구축 단계에서부터 라키비움 형태로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웹에서의 자료에 대한 접근은 물론, 강원학 관련 자료(실물)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상설전시, 기획전시, 체험 전시, 외부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개발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식과 정보에 대한 단순한 전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유관기관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디지털 장서에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획득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최대한 가깝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1차 자료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등 긍정적 가치를 고려할 때 라키비움은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방안의 지향점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이나 세부 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단일 인터페이스, 단일 로그인 및 인증 기능, 협업 등의 포털 서비스를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한 반영도 고려하여 접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Ⅶ.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1.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강원학 아카이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강원학 자료를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관련법에서는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문화자원의 특수성 및 자체 보존을 통한 이용 편의성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과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도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만큼, 강원학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강원도 조례에 근거한 아카이브를 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2. 수집정책 수립

수집정책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유연한 수집 정책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외적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한 정기적 점검과 수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을 수립한다.

수집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요소에는 사명문, 수집대상의 영역, 수집 대상, 수집 주체, 수집 범위 및 수집 분야의 명확화, 수집 방법, 수집 절차, 수집 자료의 형태, 수집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저작권 관련 규정,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증관련 사항, 대여사항, 기록물 관리 사항, 타 기관과의 협력, 처분, 수집 활동의 수준 정의, 수집 기록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의 요소 중 강원학연구센터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하여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특히 자료에 대한 저작권과 개인정보취급 방침 등에 대한 요소는 수집정책에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문화한다. 저작권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허락 표시)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용자에게도 이를 명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학 아카이브에 로그인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만들어 공지하고, 이를 이용자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간략하지만 명확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범위나 인용 방식에 대한 예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증동의서, 구술채록 동의서, 대여동의서와 같은 양식도 마련한다.

3. 아카이브 관련 기준안 수립을 위한 ‘강원학 아카이브 TFT’ 결성

아카이브 구축 시 마련되어야 하는 수집정책, 평가기준표, 분류기준표, 저작권 정책 등의 다양한 기준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된 ‘강원학 아카이브 TFT’를 결성한다. 기록학, 문헌정보학, 문화원, 박물관, 도서관 관계자, 웹 개발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운영함으로써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관련 기관은 물론, 전국 각 지역학연구센터와 관련 기관 더 나아가 세계 각국과의 아카이브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강원학 아카이브 개념 정의, 타 지역 아카이브 구축 사례조사, 아카이브 모델 구축 방안 마련 등 아카이브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이슈를 제공하고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을 도내외에 알려 공감의 장을 형성한다.

4. 강원학 자료 및 연구자 정보 DB화

강원학 홈페이지를 통해 강원학 자료와 강원학 관련 연구자 접수·등록하여 연구자 인력 DB를 구축한다. 도 내외 대학·연구기관·박물관·문화원·시군 등 유관기관의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원학 자료의 범주와 성격, 강원학 학문 체계와 기능을 분석하여 분류체계표를 작성하고, 선별·평가기준표를 마련한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연구분야별 기초 연구자료 수집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 수집대상 자료에 대한 선별하고 DB화를 진행한다. 이때 전수조사가 완료된 목록은 전체 제공하며, 원문제공은 논문의 경우 RISS 등 소장기관 링크를 제공하고, 저작권, 지식재산권이 해결된 자료에 한하여 PDF파일로 원문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경우 경기도 DB를 통해 31개 시군이 발간한 도서들에 대한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간도서의 최소 70% 이상의 원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학을 조사, 연구,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가 완료되어 있다. 이중 경기학 관련 도서 200권을 대상으로 아카이빙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경기학 책 100권’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국회전자도서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원문서비스가 제공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하이퍼링크를 하여 제공하고, 매장문화재관련 보고서는 경기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와의 연결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5. 컬렉션 아카이브 기획

자료의 DB구축과 함께 강원학 아카이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획 아카이브를 구상하여 추진한다. 다양한 주제 속에서 강원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남북 강원 유산과 관련하여 역사, 문화, 자연, 사회, 생활, 예술, 언어 등의 분야에서 10대 요소를 선정,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진행하는 형식이 가능하다. 또한, 강원학연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 출판 및 번역 지원 사업 등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아카이브화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6. 공간 및 장비 마련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업무기능에 근거한 작업공간 및 장비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공간은 사무영역(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사무공간), 연구영역(관련 연구자들의 연구공간), 작업영역(수집관리 작업공간 등), 보존영역(매체별 보존공간, 보존공간 관리 사무공간), 활용영역(전시, 열람공간)으로 구성되며, 업무 공간에 따른 필요 장비들은 아래와 같다.³³⁾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참조.

<표 VI-1> 아카이브 작업 영역별 필요 장비

| 영역 | 필요 장비 |
|------|---|
| 보존영역 | 일반매체 : 서가, 모빌랙, 철제서가, 선반 등 필름/자기매체 : 전자식 콤팩트 선반, 철제서가 등 박물 : 개방형·특수서가, 철제서가 등 전자매체 : 서버 컴퓨터 및 스토리지 관련 설비 등 |
| | 공기조화설비 : 향온·향습설비 온습도계 : 서고당 1대 소화설비 : 자동소화시설(또는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보안장비 : 이중 잠금장치 탈산처리장비 : 설치 소독처리장비 : 설치 전산장비 - 주전산기, 저장장치, 입력장비, 통신장비, 열람장비 마이크로필름장비 : 판독복사기 |
| 활용영역 | 열람실 : 개가식서가, 열람용 탁자·의자, 열람용 컴퓨터, 마이크로필름/피시 리더기, 복사기, 파일링 캐비닛 등 |
| 작업영역 | 수집관리 소독장비, 마이크로필름 촬영기, 스캐너 등 |

7. 인력

아카이브 정책·연구 분야, 수집·등록 분야, 전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 인력을 구축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정책연구 분야 담당자는 아카이브 정책개발 및 자료보존관리업무,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예산관련업무, 수집 및 심의 위원회 구성, 강원학 아카이브 TFT구성, 현지 조사 및 보고서 발간, 아카이브 관련 학술세미나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집·등록 분야 담당자는 수집 자료를 분류하고, 등록 및 DB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산분야 담당자는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8. 예산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필요 예산 항목으로는 크게 인건비, 자료 수집·정리 및 DB화 소요 비용,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 작업 공간 및 필요 장비 구입비 등이 예상된다. 현재 지역학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학아카이브 운영·관리비용으로 약 760,7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³⁴⁾ 강원학 아카이브 역시 이에 준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에는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공간·장비 마련을 위한 비용이, 구축 이후에는 유지·발전을 위한 비용이 주된 예산 항목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는데에는 많은 예산의 투입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 아카이브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34) 좌혜경, 「제주학아카이브 현황과 발전방안」, 제주학정책연구 세미나 발표 자료집 『디지털시대의 제주학아카이브 발전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8

Ⅶ. 결론

정보화 사회를 넘어 지식기반의 사회로 시대적 흐름이 변화하면서 아카이브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교량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학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해 가고 있는 만큼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지역학 연구를 위한 기록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토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성과물들을 한 곳에 모아 집적(集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다면 교육, 연구, 창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양분으로 기능할 것이다.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단시간에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내 지역학 연구기관, 연구자, 관공서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가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와 출처가 예상되는 강원학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일관된 정리, DB화 방안, 저작권 문제, 자료 제공에 대한 표준화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강원학 아카이브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료 공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강원학 아카이브의 구축 이전부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자 모임을 형성하거나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다

양한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처럼 강원학 아카이브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기관, 연구자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아카이브 구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예산 확보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의 구축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原) 자료를 가공하여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콘텐츠로 만들어 내는데 전문적인 작업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보관 장소는 물론 아카이브화 작업을 위한 장비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도(道)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전문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한 강원학 아카이브는 강원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원도형 온·오프라인 아카이브(가칭 ‘강원학 라키비움’) 형태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강원학 아카이브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단순한 전달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통합형 정보를 제공하는 선진적인 강원학 아카이브 모델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강원학 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해 강원학 자료가 체계적으로 집적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 강원학 자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관련 보고서·논문 및 발표자료

- 『디지털시대의 제주학아카이브 발전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8
- 『경기도메모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6
-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연계 문화원 자료 디지털화 방안 연구』,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4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제주발전연구원, 2012
- F.Gerald Ham, 강경무·김상민 역,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 Gertz, J. 「디지털 시대에 있는 보전을 위한 선택: 개관」 도서관 자원 & 기술 서비스, 2000
- 김병철,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0
- 김정현, 「강원학에서의 지역사(地域史) 연구 위상과 과제」, 『江原史學』29, 2017
- 배양희·김유승,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기록학연구』53, 2017
- 신원영, 「한국 공공기록관리 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오영교, 「제4장 강원연구와 강원학」, 『강원도사』18, 강원도, 2017
- 유영심, 『강원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정립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16
- 윤선우, 「이용자참여와 연결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플랫폼 도입 방안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경남,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서울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남희, 「지역문화콘텐츠 구축과 디지털 지역학」, 『인문콘텐츠』47, 2017
- 이미영, 「공적(公的)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기록 평가기준 연구」, 『기록학연구』46, 2015

- 관련 보도자료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국가기록원 <http://archives.go.kr>
- 제주학아카이브 <http://www.jst.re.kr>
- 인천학아카이브 <https://idmap.inu.ac.kr>
- 경기도메모리 <https://memory.library.kr>
- 공주학아카이브 <http://kjha.kongju.ac.kr/archive>
-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http://cksm.kangwon.ac.kr>
- 아리랑아카이브 <http://arirangarchive.com>

| |
|----------|
| Abstract |
|----------|

A Basic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ve for Gangwon Studies

Jeong Ji-yeong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ve for the collec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and use of the results of numerous researches related to Gangwon Province is increasing with the heightened interest in regional studies. If an archive that can collect and provide services with all the research data related to Gangwon studies is established, it will become possible for researchers and the public to have a better access to the materials related to Gangwon studies for more active researches on Gangwon studies. In addition, the value of the materials will be able to be reproduced through the provision of the established materials as the source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various contents of resources for education, research, creation industry, etc.

As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ve for Gangwon studies such as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rrangement of the materials related to Gangwon Province and regional studies and the plans for making a DB, copyright problem and the plan for standardized offering of materials, it is necessary to make a precise design for them in adv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basic factor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ve for Gangwon studies in the aspects of the collection, management and use of the materials and suggest a road map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ve for Gangwon studies in consideration of the immensity of the materials related to Gangwon studies and the diversity of the types of materials.

First, the concept of archive was defined from the viewpoint of archival studies and the basic facto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ve for Gangwon studies were examined through the basic process of collection, arrangement (selection and evaluation), classification, technology, making a DB, preservation and use (service). In additi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rchives in and out of Gangwon Province was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demand for an archive for Gangwon studies in Gangwon Province. On such a basis, the concept and objects of the archive for Gangwon studies were clarified; necessary works were suggested; and the strategies in each phase were prepared.

The prerequisites for the effectiv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rchive for Gangwon studies were presented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the legal grounds for collection of materials,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on policy, formation and operation of a TF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rchive for Gangwon studies, making a DB of the materials of Gangwon studies and information on researches, planning the collection archive and preparing the space and equipment.

강원학 연구보고 2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기초 연구

A Basic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ve for Gangwon Studies

2018년 12월 일 인쇄

201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육동한

발행처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전화 : (033) 250-2980, 2983

URL : <http://www.gangwonstudies.re.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